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4. 11. 27.(수) 11:00,  
(지면) 2024. 11. 28.(목) 조간

배포 2024. 11. 27.(수) 06:00

# 해수부, 남해권역 해양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착수

- 11월 27일, 부산항 해경 소형선부두 축조공사 착수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11월 27일(수) 부산항 해경 소형선부두 축조공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.

현재는 부산해양경찰서, 중앙해양특수구조단,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가 남해권역 해상경비 및 구조, 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도구 동삼동에 위치한 해경전용 부두에서 최대 1,500톤급 이하의 함정 등 총 20척(대형함정 7척, 소형함정 13척)을 운용하고 있다.

하지만, 운영 중인 소형함정 1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없어\* 함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, 이로 인해 강풍 및 너울성 파도 발생 시에는 약 5km 떨어진 인근 부두\*\*로 피항해야 하는 상황으로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.

\* 현재는 최대 대형함정 7척, 소형함정 2척만 동시 접안 가능

\*\* (대형함정) 진해만(67km 이격), (소형함정) 부산항 5부두, BPA부두, 한진중공업부두 등(5km 이격)

이에 해양수산부는 해경부두의 정온을 확보해 남해지역 해상 치안유지 능력을 강화하고 해양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총 188억 원을 투입하여 소형함정 13척이 상시 동시 접안이 가능하도록 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부산항 해경 소형선부두 착수를 계기로 남해권역에서의 함정 긴급출동 및 각종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응(약 15분 단축)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며, “남해권역 해상 치안유지 기능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항만국	책임자	과 장	황상호 (044-200-5930)
	항만개발과	담당자	사무관	조영위 (044-200-5935)

## 참고

## 부산항 해경 소형선부두 축조공사 사업개요

### □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부산항 해경전용부두 내 소형함정 접안수역 정온확보 및 해양 경비 활동 시 부두 이용 안전성·효율성 증대를 위한 부두 및 파제체 조성 등
- (사업규모) 부두 230m, 파제체 80m 등
- (공사기간 / 총공사비) 착공 후 36개월('24.~'27.) / 188억 원

<해경 소형선부두 위치도>



<해경 소형선부두 평면도>

